



自殺이나 「교사·방조」나

遺書 필적 攻防가열

감정결과 몹시 정확실

새 필적 공개... 조작 주장

【서울 21일 특파원 특보】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김기고(41) 씨의 분신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21일 오후 6시경 발표되었다. 김 씨의 유서 필적을 감정해본 결과, 김 씨가 유서를 쓴 것은 사실임이 밝혀졌다. 김 씨의 유서 필적은 감정결과에 따라 조작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감정결과가 매우 정확하여 조작 주장이 기각되었다. 김 씨의 유서에는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볼 수 없게 되었다. 내 가족과 친척들에게 미안하다. 내 생애를 정리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씨의 유서 필적은 감정결과에 따라 조작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감정결과가 매우 정확하여 조작 주장이 기각되었다.



김기고 씨의 유서 필적 사진

在野 再결속 부른 강경대응

이민주 時局수습책에 관심 집중

잇따른 쫓身に 사회불안 長期化

【서울 21일 특파원 특보】 21일 오후 6시경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김기고(41) 씨의 분신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21일 오후 6시경 발표되었다. 김 씨의 유서 필적을 감정해본 결과, 김 씨가 유서를 쓴 것은 사실임이 밝혀졌다. 김 씨의 유서 필적은 감정결과에 따라 조작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감정결과가 매우 정확하여 조작 주장이 기각되었다. 김 씨의 유서에는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볼 수 없게 되었다. 내 가족과 친척들에게 미안하다. 내 생애를 정리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씨의 유서 필적은 감정결과에 따라 조작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감정결과가 매우 정확하여 조작 주장이 기각되었다.

示威규모 계속 커져 6共 최대 기록 觀界 의견이 분분함

【서울 21일 특파원 특보】 21일 오후 6시경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김기고(41) 씨의 분신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21일 오후 6시경 발표되었다. 김 씨의 유서 필적을 감정해본 결과, 김 씨가 유서를 쓴 것은 사실임이 밝혀졌다. 김 씨의 유서 필적은 감정결과에 따라 조작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감정결과가 매우 정확하여 조작 주장이 기각되었다. 김 씨의 유서에는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볼 수 없게 되었다. 내 가족과 친척들에게 미안하다. 내 생애를 정리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씨의 유서 필적은 감정결과에 따라 조작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감정결과가 매우 정확하여 조작 주장이 기각되었다.

“김기설씨 유서 대필 판명” 김철

“조작...공개장소 조사응해” 전민련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강신욱 부장검사)는 20일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써준 것으로 지목받은 용의자가 전민련 총무부장 장기훈(27)씨라고 밝히고 2차례의 필적감정서를 공개했다.

김철은 김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자살방조 또는 교사혐의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병동성당쪽에 김씨의 출두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김철은 85년 11월 당시 단국대 삼민주위위원장인 김씨가 서울 송파구 가락동 민정당연수원 점거농성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경찰에서 쓴 자술서의 필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한 결과, 유서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김철이 공개한 지난 17일 자의 2차 감정서는 △김씨가 경찰에서 쓴 자술서 2장 △김씨가 여자친구인 홍아무개(25)씨에게 전달한 메모지 1장 △김씨가 남긴 유서 2장 등에 대한 감정 결과, '모두 동일 필적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돼 있다.

또 지난 15일자 1차 감정서는 △김씨 명의 유서 2장 △김씨가 폭이 제출한 조카생일기념 책자의 필적 2장 △김씨의 주민증 분실신고서 필적 1장 △전민련이 제출한 업무일지 필적 3장 △김씨에게 보내진 <정세연구> 표지 필적 1장 등에 대한 감정 결과, 유서와 업무일지 필적이 '동일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돼 있다.

그러나 조카생일기념 책자의 필적과 주민증 분실신고서 필적에 대해서는 '상호 동일한 필적'으로서 유서필적과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고 정서와 속필, 필기구에 따른 변화점을 알 수 없어 동일성 여부를 논할 수 없음'으로 판정했으며 유서와 <정세연구> 표지 필적은 '대조할 분

자의 부족으로 동일성 여부를 논할 수 없음'으로 판정했다.

김철은 또 김씨 분신사건 직후 김씨의 주도로 홍씨와 이영미(24)씨 등 4-5명이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카페에서 만나 검찰수사에 대비, 구체적인 의의를 한 사실도 확인하는 등 김씨의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들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철은 이날 김씨가 분신 전날밤 갖고 있던 홍씨에게 건네준 수첩이 현재 전민련쪽에 보관돼 있는 사실이 확인돼 이를 김철에 제출해줄 것을 전민련쪽에 요구했으며 홍씨에 대한 조사에서 전민련 간부가 이 수첩을 넘겨받으면서 홍씨에게 "이 수첩은 없는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기훈씨 등 전민련 관계자들은 이날 병동성당에서

김철의 김기설씨 유서 대필 여부에 관한 수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김철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로 김씨가 평소 썼던 수첩과 김철에 의해 대필용의자로 지목된 김씨가 87년 마산교도소 수감 시절 집으로 보낸 편지 사본을 공개했다.

대책회의는 "이 수첩의 필적과 유서 필적은 같으나 김씨가 쓴 편지 필적과는 분명히 다르다"면서 "김철 발표는 온 국민의 민주화열기를 누그러뜨리는 악의에 찬 책략남조"라고 주장했다.

전민련은 김철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김씨의 필적이 담긴 전민련수첩을 복사한 뒤 원본을 이석태 변호사와 최규성 전민련 상임집행위원을 통해 김철에 넘겼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씨는 김철의 출두요구에 대해 "김철이

밀실수사를 통해 사실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출두요구에는 응하지 않겠으나 안정되고 공개된 제3의 장소에서는 김철 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1991년 5월

① 새가 되어 귀양시켜
러우 정황은 상해
민중들의 재취를 위함
하나 되어야 상해
- 김기설

② 용서받지
워진대일
대기일

③ 수심
우리 재림이
질서의 주미르
- 삼촌 기일 -

④ 보고싶은
당방이 공 북었다. 보내
달이 들고, 성벽도 많이
미리 완연한 봄이후
문물 북게 울음소리 진동내도

① 김기설씨가 남긴 유서. ② 전민련이 20일 공개한 김기설씨의 수첩. ③ 85년 김기설씨가 조카 생일기념 책에 쓴 필적. ④ 김기훈씨가 87년 마산교도소에서 동생에게 보낸 편지.

筆跡의 후 철저히 가려야

지난 8일 西江大에서 분신자살한 김기설씨(27)의 유서 대필자로 지목된 용의자 장기훈(27)씨의 필적감정서를 공개했다.

김철은 김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자살방조 또는 교사혐의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병동성당쪽에 김씨의 출두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김철은 85년 11월 당시 단국대 삼민주위위원장인 김씨가 서울 송파구 가락동 민정당연수원 점거농성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경찰에서 쓴 자술서의 필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한 결과, 유서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김철이 공개한 지난 17일 자의 2차 감정서는 △김씨가 경찰에서 쓴 자술서 2장 △김씨가 여자친구인 홍아무개(25)씨에게 전달한 메모지 1장 △김씨가 남긴 유서 2장 등에 대한 감정 결과, '모두 동일 필적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돼 있다.

또 지난 15일자 1차 감정서는 △김씨 명의 유서 2장 △김씨가 폭이 제출한 조카생일기념 책자의 필적 2장 △김씨의 주민증 분실신고서 필적 1장 △전민련이 제출한 업무일지 필적 3장 △김씨에게 보내진 <정세연구> 표지 필적 1장 등에 대한 감정 결과, 유서와 업무일지 필적이 '동일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돼 있다.

그러나 조카생일기념 책자의 필적과 주민증 분실신고서 필적에 대해서는 '상호 동일한 필적'으로서 유서필적과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고 정서와 속필, 필기구에 따른 변화점을 알 수 없어 동일성 여부를 논할 수 없음'으로 판정했으며 유서와 <정세연구> 표지 필적은 '대조할 분

자의 부족으로 동일성 여부를 논할 수 없음'으로 판정했다.

김철은 또 김씨 분신사건 직후 김씨의 주도로 홍씨와 이영미(24)씨 등 4-5명이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카페에서 만나 검찰수사에 대비, 구체적인 의의를 한 사실도 확인하는 등 김씨의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들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철은 이날 김씨가 분신 전날밤 갖고 있던 홍씨에게 건네준 수첩이 현재 전민련쪽에 보관돼 있는 사실이 확인돼 이를 김철에 제출해줄 것을 전민련쪽에 요구했으며 홍씨에 대한 조사에서 전민련 간부가 이 수첩을 넘겨받으면서 홍씨에게 "이 수첩은 없는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기훈씨 등 전민련 관계자들은 이날 병동성당에서

김기설씨가 남긴 유서. ② 전민련이 20일 공개한 김기설씨의 수첩. ③ 85년 김기설씨가 조카 생일기념 책에 쓴 필적. ④ 김기훈씨가 87년 마산교도소에서 동생에게 보낸 편지.

全民聯 姜씨 신병확보나서

金基萬씨 유서 代筆·은폐기도 확증있다.

科搜研 필적감정서 同一통보 소환不應 門 門 사전 命狀 신청

【서울 21일 특파원 보도】 1989년 12월 25일 서울에서 발생한 김기만(金基萬) 씨의 유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수사과와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이하 '과학수사연구소')가 필적감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수사연구소는 김기만 씨의 유서와 김기만 씨의 친필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필적 특성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이는 김기만 씨가 유서 작성을 주도했음을 시사하는 결정적 증거로 평가된다.

또한, 김기만 씨의 유서에는 은폐된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는 유서 사건의 복잡성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

검찰·在野 유서 攻防 가열

【서울 21일 특파원 보도】 유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야당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유서 작성을 김기만 씨가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야당은 이를 은폐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검찰은 유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김기만 씨를 소환하려 했지만, 김기만 씨는 응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死後에 필적 조작·심증 굳혀
필적 같다·수첩 등 새로 제시

【서울 21일 특파원 보도】 유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야당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유서 작성을 김기만 씨가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야당은 이를 은폐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검찰은 유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김기만 씨를 소환하려 했지만, 김기만 씨는 응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의에 찬 날조·禽獸

【서울 21일 특파원 보도】 유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야당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유서 작성을 김기만 씨가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야당은 이를 은폐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검찰은 유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김기만 씨를 소환하려 했지만, 김기만 씨는 응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社說

眞相 밝히 가려내자

【본지 특파원 보도】 유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야당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유서 작성을 김기만 씨가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야당은 이를 은폐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검찰은 유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김기만 씨를 소환하려 했지만, 김기만 씨는 응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유서 대결의가 격렬하다

檢察 在野 攻防 가열

【서울 21일 특파원 보도】 유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야당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유서 작성을 김기만 씨가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야당은 이를 은폐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검찰은 유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김기만 씨를 소환하려 했지만, 김기만 씨는 응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在野 계출자료, 카드 필적 등과, 감정불가.

【서울 21일 특파원 보도】 유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야당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유서 작성을 김기만 씨가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야당은 이를 은폐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검찰은 유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김기만 씨를 소환하려 했지만, 김기만 씨는 응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死後에 필적 조작·심증 굳혀

【서울 21일 특파원 보도】 유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야당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유서 작성을 김기만 씨가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야당은 이를 은폐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검찰은 유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김기만 씨를 소환하려 했지만, 김기만 씨는 응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필적 같다·수첩 등 새로 제시

【서울 21일 특파원 보도】 유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야당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유서 작성을 김기만 씨가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야당은 이를 은폐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검찰은 유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김기만 씨를 소환하려 했지만, 김기만 씨는 응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The Kookmin Ilbo

1991년 5월 21일 21일 禮拜四 四月八日 申時 大田 日 (日刊)

自殺방조 혐의 수사

검찰 姜씨 출두거부땀 강제連行

유서筆跡 파문 확산

科搜研 "4글씨 同一 확인"

全民聯선公開 수사 촉구



【대전 20일 특파원 보도】 대전지검은 유서사건에 연루된 姜某(姜某)의 출두거부를 강행한 혐의로 姜某를 강제연행했다. 姜某는 유서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대전지검에 출두할 것을 거부한 바 있다.

대전지검은 姜某의 출두거부를 강행한 혐의로 姜某를 강제연행했다. 姜某는 유서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대전지검에 출두할 것을 거부한 바 있다.

대전지검은 유서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姜某를 강제연행했다. 姜某는 유서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대전지검에 출두할 것을 거부한 바 있다.

대전지검은 유서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姜某를 강제연행했다. 姜某는 유서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대전지검에 출두할 것을 거부한 바 있다.



제1차	705	4,114
제2차	705	4,331
제3차	705	4,314
제4차	705	4,314
제5차	705	4,314
제6차	705	4,314
제7차	705	4,314
제8차	705	4,314
제9차	705	4,314
제10차	705	4,314
합계	7,050	43,114

직사각형
정정해드립니다

정정해드립니다. 정정해드립니다. 정정해드립니다.

오늘의 부록
UR를 이긴다 17면
아프리카 기아지대 19면
사람회복 전위대들 22면
내그장 문화관장 18면

대전지검은 유서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姜某를 강제연행했다. 姜某는 유서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대전지검에 출두할 것을 거부한 바 있다.

대전지검은 유서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姜某를 강제연행했다. 姜某는 유서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대전지검에 출두할 것을 거부한 바 있다.

1991년 5월 21일 大田 日

遺書글씨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다



충청북도에서 지휘관 한민권(한민권)은 21일 영동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성환(김성환)의 유서사건에 대해 발표한다.

科搜研의 거듭된 확인에 代筆확신

自筆을 증편지 등 공개 조작극 말라

【대전 20일 특파원 보도】 대전지검은 유서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姜某를 강제연행했다. 姜某는 유서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대전지검에 출두할 것을 거부한 바 있다.



대전지검은 유서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姜某를 강제연행했다. 姜某는 유서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대전지검에 출두할 것을 거부한 바 있다.

대전지검은 유서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姜某를 강제연행했다. 姜某는 유서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대전지검에 출두할 것을 거부한 바 있다.

金씨유서 自筆이나 代筆이나

191.5.21 中央

이제부터는 2월 21일 191.5.21 中央

민중련맹 재취를 위한 하나 리여야 할 것이요

焚身자살 배후개입 중요단서 검찰

업무일지 직접작성...代筆없다 全民聯

【서울 21일 특파원 특보】 全民聯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긴급 회의를 열어, 21일 191.5.21 中央

이제부터는 2월 21일 191.5.21 中央

민중련맹 재취를 위한 하나 리여야 할 것이요

「유서筆跡」 공방 가열

全民聯제출 金씨 수첩 또 논란

加筆흔적 金씨것아니다 가족쓴것보아 틀림없다

全民聯

【서울 21일 특파원 특보】 全民聯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긴급 회의를 열어, 21일 191.5.21 中央

이제부터는 2월 21일 191.5.21 中央

민중련맹 재취를 위한 하나 리여야 할 것이요



金씨 수첩의 일부분

수십배 확대... 혁신·물류·정보관찰

「華越(華越)」... 각종 업무개항

「華越(華越)」... 각종 업무개항

「華越(華越)」... 각종 업무개항

반드시 原本... 성격도 판명가능 法官인정면 재판증거능력 有效

「華越(華越)」... 각종 업무개항

「華越(華越)」... 각종 업무개항

「金씨 수첩」 일부내용 빠져

검찰 「遺書대필」 혐의 筆跡 감정 의뢰

영문·日誌도 날짜바꾸고 찢겨져

金씨 焚身직전 「행적공백」 집중수사

영문·日誌도 날짜바꾸고 찢겨져

수첩 누락부분 없다

수첩 누락부분 없다

수첩 누락부분 없다

수첩 누락부분 없다

수첩 누락부분 없다

전민련 제출 수첩 진위 논란

검찰 "일부 침삭흔적" 재야 "원본 친필분명"

김기철씨 분신사건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혁부(강신욱 부장검사)는 21일 전민련으로부터 진내 받은 김씨의 수첩이 다른 사람의 수첩이거나 아니면 상당부분 침삭된 것으로 판단. 이 수첩의 필적을 강경죄 위해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전민련측에 요구했던 수첩은 김씨가 분신전 여자친구 홍아무개(25)씨에게 건네준 뒤 다시 김씨의 분신이 있는 8일 낮 대법회의쪽의 원순을씨가 넘겨받은 것"이라며 "전민련이 제출한 수첩은 몇군데가 찢어져 있고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대법회의. 관계자들이 복사해 나눠가졌다가 다시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된 부분이 빠져 있는 등 여러가지 점에서 원래의 수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민련으로부터 건네받은 수첩과 김씨의 유서를 대별해 준 것으로 저촉되고 있는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의 자술서 및 김씨가 누나에게 보낸 책자에 적힌 메모의 필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수첩의 필적이 김씨와 강씨의 필적 중 어느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검찰은 또 지난 12일 전민련이 김씨가 작성한 것이라며 1년 전인 사회국 업무일지도 첫장의 4/5 가량이 찢어져 있고 모두 연필로 쓰여 있는데 글씨체도 똑같아 하루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강씨가 계속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명동성당쪽에 강씨가 출두토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지난 5일부터 분신하기 전날인 7일까지 김씨의 행적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한 조사결과 "김씨가 주도해오던 방송통신대생으로 이루어진 소모임에 속해 있던 이아무개(21·여)씨와 헤어진 6일 오후 3시쯤부터 홍씨를 만나 '내일 죽

겠다'고 밝힌 7일 오후 7시30분께까지 하룻동안의 행적이 묘연하다"고 말했다.

전민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에 넘긴 전민련수첩이 "분신한 김기철씨의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분명히 김씨의 소유로 메모 역시 김씨가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상필 전민련 상임의장은 "지난해 5·9대회 이후 수첩을 받아 김씨를 통해 전민련과 연락을 취했다"면서 "수첩 내용 가운데 '채플린(옛

골방향 78-1)'은 내가 보는 가운데 김씨가 썼다"고 말했다.

한 상임의장은 "이같은 증언을 목사로서의 신학적 양심과 개인의 명예를 걸고 밝힌다"고 덧붙였다.

전민련은 또 검찰의 수첩훼손 주장에 대해 "일부 훼손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중요 내용을 훼손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날 함께 참석한 서울 송의여전 총학생회장 이보영(20·문예창작2)씨 등 학생 2명은 "지난달 18일 서울 기독교회관 지하다

방에서 김씨가 수첩 메모용지에 '목요일배현금(4/18)-38,600-'을 쓰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당시 속초 동우전문대 문제로 김씨를 만났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또 그동안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또다른 메모용지를 공개하면서 "이 메모는 기독교회관 지하다방을 나와 오후 8시경. 전민련 사무실에서 김씨가 작성한 것"이라며 "동우전문대 문제로 모금을 받기 위해 당시 예정된 집회들을 적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강기훈씨는 "지난 10일과 12일 술친 김씨의 여자친구 홍아무개씨를 만나 검찰의 출두요구에 대해 걱정하는 홍씨에게 '공안 당국의 반복적 진술요구와 강압적 수사 분위기에 의연하게 대처하라'는 말을 했다"며 분신이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날조"라고 주장했다.

전민련은 또 검찰의 강씨에 대한 출두요구에 대해 "언제든지 응하여 당당하게 진실을 밝혀겠다"며 "다만 신변의 안전을 위해 최근 임근제서 경우처럼 공개적이고 안정된 장소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① '주거권 재취득 운동대리' 연구시 각종단체 방문. "저녁은 시인 김기철" (Handwritten note)

② 리라유 정황은 상당히 민중련의 재취득을 위함 하나 리라유 상당수 - 김기철 - (Handwritten note)

③ 부러지지 시작하면서 부터 치환기 시작했음이나 낮은 모든 장수들 (Handwritten note)

1. 송의여전 학생들이 21일 김기철씨의 필체라고 공개한 메모
2. 김기철씨가 남긴 유서 3. 지난 85년 김기훈씨가 구속당시 작성한 자술서.

한겨레신문

본사 감정의뢰 '필적' 압수수색

검찰 전문기관 뒤져 '강씨 편지' 촬영해가 김씨 유서판정 공정성 저해우려 중단

고 김기철씨 유서 대필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한겨레신문>이 유서의 진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설 감정기관에 의뢰한 필적감정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중단되었다.

21일 오전 10시10분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84 한국빌딩 301호 중앙인명필적감정원(대표 고현태)에 서울지검 강혁부 윤석민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문서분석실장, 검찰 수사관 등 4-5명이 찾아와 <한겨레신문>이 감정을 의뢰한 문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한겨레신문>은 지난 20일 전민련측이 검찰 발표에 대한 반박자료로 제시한 김씨가 87년 4월 옥중에서 역동영에게 보낸 편지 사본 스캔본과 정소 사

용한 것으로 알려진 수첩 사본 스캔본에 대해 대필용지로 저촉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가 지난 87년 마산교도소 수감 시절 김씨로 보낸 편지라며 제시한 편지 사본 등 3종류의 문건에 대한 필적감정을 이 감정원에 의뢰했다.

이 필적감정원의 감정원 이인환(40)씨에 따르면 이날 세종류의 문건 필적이 동일한지 여부를 감정하던 중 윤 검사 등이 찾아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뒤 '강씨가 썼다'는 편지 원본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책상사물 등을 압수해 갔다는 것이다.

김철은 이날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상물품이 '김씨가 87년 4월 옥중에서 역동영에게 보낸 편지 사본의 필적'이라고 돼

있으며 압수수색 사유는 "김씨가 당시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어 강씨의 필적과 편지의 필적이 동일한지 여부를 감정기 위해"라고 적혀 있었다.

김철은 감정원 이씨가 "예초 의뢰인이 편지 원본이 아닌 사본을 건네주며 필적감정을 의뢰했다"고 진술하자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뒤 사무실을 나갔다가 12시30분경 다시 찾아와 편지 사본의 사진을 찍어 들어갔다.

김철은 이씨에게 <한겨레신문>이 의뢰한 필적감정이 끝나면 압수수색대상인 편지 사본을 검찰에 내 달라"고 요청했다.

<한겨레신문>은 검찰의 이런 압수수색이 감정기관 관계자들에게 귀담강을 주어 자유롭고 공정한 감정을 행해리 방해하는 처사

라고 보고 검찰에 강하게 항의한 뒤 감정을 일단 중단했다.

한편 서울지검 강혁부 강신욱 부장 검사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 "전민련에서 강씨의 편지와 유서의 필적을 감정하겠다는 정보가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에 나섰다"면서 "감정 자체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마친 뒤 감정에 쓰인 필적을 압수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부장은 또 "이런 조처는 감정 결과를 가지고 논란이 일어난 경우에 대비해 검찰로서도 감정에 쓰인 자료를 원상 그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라며 "그러나 언론사에서 감정을 하는 것일 줄 알았다면 영장발부 및 압수조치는 고려하지 않았

[2] 1991년 5월 22일(수요일) [5판]

사설

'자필' 여부 규명한 뒤 '대필' 조사하라

한 대학생의 치밀한 속음으로 촉발된 시국의 위기가 그의 안장 이후에도 전혀 가시지 않고 있기에 정부는 안장을 기다리라는 뜻이 곧바로 법국인대회의 참여단체의 주요 활동가들을 대방 검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시국은 시국이었고 '공공의 안녕'이란 틀이의 공안은 공안이라고 할 수 있다. 시국의 대에 앞선 공안 대처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8월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분신 투신사건인 김기철씨의 유서 논란이다.

김씨의 분신 투신 직후부터 자살의 배후와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검찰은 차츰부터, 김씨의 유서가 본인의 필적이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이른바 실체적 진실의 명확한 규명을 진행하기보다는 어느 대학 총장의 거창한 표현인 '어둠의 세력'의 '정체 규명'에 주력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에 따라 수사의 합당한 단계의 소극 단계를 거처어졌고 마침내 '대필'의 '예단'은 특정인을 지목하기까지 이르렀다. 검찰이 유서 자료 특정인을 지명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를 공표한 것은 현재의 시국에서 이 문제가 지니고 있는 엄청난 미묘한 측면을 헤아린 결과라 하더라도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을 떨치지 어렵다.

더욱이 김씨 '유서 필적'의 진위 여부는 '대필'의 용의자로 지목된 당사자나 그의 소속단체가 그 나름의 반증을 제시하면서 반박하고 있어 현 제로서는 실용적 속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검찰측에서 김씨 유서의 '대필' 혐의를 반증하는 유력한 자료로 제시한 것은 지목된 당사자가 85년말 구속되면서 경찰에서 썼다는 자술서와 유서의 필적이 같다는 두번째 감정결과로 알려진데, 결국 당사자는 2년 뒤인 87년 마산교도소 수감중 김씨로 보낸 편지사본을 제시하면서 유서 필적과 분명히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우리는 검찰이 선행본 '예단'을 자제하고 우선 유서가 김씨의 필적이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좀더 최근의 김씨 필적을 수감해 충분한 감정필자를 거칠 것을 당부한다. 그러한 재판적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대필' 용의자를 지목하고 그 당사자의 필적감정으로 '대필' 여부부터 확인하려고 나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는 현시국의 중대성과 연관해서 이 '불발성' 사안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국인대회의쪽과 당사자의 슬기로운 대처를 촉구한다. 아울러 검찰 또한 확보한 물증에 자신한다면 당사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굳이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姜基勳 경력·出身 判이한 동료간부 金基高

유서 필적 논란 두 사람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북상위) 부위원장인 김일성(82)의 유서 필적 논란이 최근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일성의 유서 필적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일성의 유서 필적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운동권 출신 内部업무만 담당 姜 수배자 접촉 등 對外활동 전념 金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북상위) 부위원장인 김일성(82)의 유서 필적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일성의 유서 필적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일성의 유서 필적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原本만 감청... 증거 채택 가능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북상위) 부위원장인 김일성(82)의 유서 필적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일성의 유서 필적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일성의 유서 필적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결국 肉眼으로 가려 誤判의 소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북상위) 부위원장인 김일성(82)의 유서 필적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일성의 유서 필적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일성의 유서 필적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북상위) 부위원장인 김일성(82)의 유서 필적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일성의 유서 필적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일성의 유서 필적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찰 "姜씨가 遺書작성" 단정

焚身 교사·방조 여부 집중수사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북상위) 부위원장인 김일성(82)의 유서 필적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일성의 유서 필적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일성의 유서 필적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金씨筆體는 두가지 주장

이력서·격려문 내용 공개

全民聯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북상위) 부위원장인 김일성(82)의 유서 필적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일성의 유서 필적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일성의 유서 필적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북상위) 부위원장인 김일성(82)의 유서 필적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일성의 유서 필적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일성의 유서 필적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쇼세수첩은 뭤씨가 써줬다』

분신 金基高씨 친구 洪양, 檢察서 진솔

내가 죽게 돼 있다. 애기도 들어

“自殺개입 확증” 뭤씨 곧 拘引

全民聯간부 3명 추가 소환

김철

【서울 27일 특파원 보도】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10동 10층에 있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긴급환자 3명이 실려왔다. 이들은 모두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들이었다. 이들은 각각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자마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약 1시간 30분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이들은 각각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자마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약 1시간 30분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분신 金基高씨 筆跡

全體 呼립체 2가지

【서울 27일 특파원 보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자마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약 1시간 30분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이들은 각각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자마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약 1시간 30분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서울 27일 특파원 보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자마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약 1시간 30분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이들은 각각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자마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약 1시간 30분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인행

인행

『뭤씨 인행』 명봉정당 국민

진해 권선여경 등 2백여명 파

【서울 27일 특파원 보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자마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약 1시간 30분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이들은 각각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자마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약 1시간 30분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종교윤리-실정법사이서 갈등

인도맨 「민주聖地」 이미지 손상

【서울 27일 특파원 보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자마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약 1시간 30분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이들은 각각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자마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약 1시간 30분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서울 27일 특파원 보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자마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약 1시간 30분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이들은 각각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자마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약 1시간 30분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민수 중앙의 기침들』
『나 피사당 전변하리니』
『승해방의 함성』
『저기 공업고 증배전파』
『인 검정고시 합격』
『구 제 2736 부대 전파』

『遺書대필』 『지방 長期化될 듯』

유서사건이 발생한 후 유서대필업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다. 유서대필업은 유서대필가들이 유서대필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다. 유서대필가들은 유서대필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다. 유서대필가들은 유서대필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다.

유서대필가들은 유서대필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다. 유서대필가들은 유서대필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다. 유서대필가들은 유서대필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다.

유서대필가들은 유서대필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다. 유서대필가들은 유서대필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다. 유서대필가들은 유서대필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다.

『文書 6件 놓고 양측 상반된 주장』

『肉眼감정·公認기관판정 일체 거부 판심』

유서대필가들은 유서대필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다. 유서대필가들은 유서대필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다. 유서대필가들은 유서대필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다.

유서대필가들은 유서대필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다. 유서대필가들은 유서대필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다. 유서대필가들은 유서대필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다.

『홍씨수첩 강씨필적』 쟁점

검찰 “홍씨 ‘김씨자필’ 주장하다 반복”
강씨 “조작... 써넣은 사실 없다” 반박

검찰은 홍씨의 이인 반복인술이 강씨가 유서의 대필자임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에 지난 17일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을 냈고 이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의 항에 법원으로부터 판례를 인용하며 홍씨의 진술이 허위임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의 항에 법원으로부터 판례를 인용하며 홍씨의 진술이 허위임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씨의 이인 반복인술이 강씨가 유서의 대필자임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에 지난 17일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을 냈고 이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의 항에 법원으로부터 판례를 인용하며 홍씨의 진술이 허위임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씨의 이인 반복인술이 강씨가 유서의 대필자임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에 지난 17일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을 냈고 이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의 항에 법원으로부터 판례를 인용하며 홍씨의 진술이 허위임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유서-김씨수첩 필적 같아』

본사의뢰 감정결과
검찰은 유서대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서와 김씨수첩의 필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유서와 김씨수첩의 필적이 매우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유서와 김씨수첩의 필적이 매우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유서대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서와 김씨수첩의 필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유서와 김씨수첩의 필적이 매우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유서와 김씨수첩의 필적이 매우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유서대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서와 김씨수첩의 필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유서와 김씨수첩의 필적이 매우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유서와 김씨수첩의 필적이 매우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① 광산 중학교 공익 수드려 공익 증배 대인 검거 고시 합적 유서 제 8기 26주
- ② 이땅의 자유·민주·통일이 희 선물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 김영삼 민주운동 연담 - 사회장 박상 김기철
- ③ 노태우 정권은 삼배 민중내전 재채를 위한 하나 노태우 삼배 - 김기철
- ④ 자유·민주·통일의 기치를 들고 - 수아나 타사랑 천명 하우리여

① 전민련이 김기철씨가 정자체로 작성한 이력서라고 22일 공개한 필적. ② 지난 3월 23일 전교조 원 주정부 개소식에 참석한 김기철씨가 방명록에 남긴 필적. ③ 김기철씨의 유서. ④ 성남 타사랑 청년학 우회 방명록에 적힌 김씨의 흘림체 필적.

전민련, 대책회의 참가단체에 설명회

명동성당서 1백여명 대상

○ 22일 오후 5시 40분께부터 전민련은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범국민대책회의 참가단체 관계자 1백여명에게 그동안의 '필적공방'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검찰의 태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분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고 2~3인 더 있었다는 말을 내놓았다가 거짓말로 드러난 적이 있지 않았느냐"면서 "이제는 제출자료 조작도 추가 필적 공개로 힘을 잃게 되자 정황을 문체로 삼고 있다"며 검찰의 태도에 참탄을 터뜨렸다.

필체 논쟁에 적극대응

○ 이날 설명회에서 참가단체 대표들은 "그동안 필체는 정

외파인에 따라 달라지는 사례가 많았다"고 필적검정이 안고 있는 한계를 소개했다.

"국립연구소 공신력 한계"

○ 이석태 변호사는 "검찰의 지금까지 태도는 비법률적이고 정치적이거나 인상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확보한 자료로는 김기철씨의 여자친구 홍아무개씨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장기흔적 자술서 감정 등 2종류에 불과하다"며 "이

"필적공방 검찰서 정치적 이용"

"영장청구 않고 날마다 색다른 발표" 의혹

는 이번 분신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입장 아래 검찰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진술에 응해왔지만 검찰은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검찰이 문 제삼은 김기철씨 수필 가운데 승의여전 총학생회 직통 전화번호는 내가 보는 앞에서 적었고 김씨의 친척과 고향친구 전화번호가 다수 적혀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서씨는 이어 "검찰은 분신 현 장인 서경태 본관 건물들 함께 조사하고서도 인화물질이 없었

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기자들에게 공개된 이날 설명회에서 서노협 대표는 "악의에 찬 검찰발표와 왜곡된 언론보도에 이제는 가만 있을 수 없다"며 "각 직장 부문에서 평범한 대국민선전전을 펼쳐 나가자"고 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 동안 한 박석무 의원(신민)은 "아편에서도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민주당 인권위원장 장기욱 변호사도 "과거 검사시절 필적감정 결과가

들의 법률적 검토는 내부에서 다 끝난 상태이므로 더이상 나아갈 것이 없는 데도 영장청구는 하지 않고 날마다 색다른 발표를 하고 있다"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 변호사는 또 "96 시간이라는 참법적인 검찰조사 이후 홍씨의 행방이 묘연해 진 술의 증거재백의 의심된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공인기관이라고는 하지만 내부부 산하의 기관이어서 이같은 정치적 사건에서는 오히려 사실 필적감정보다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김성걸 기자>

미주알



'필적'싸움...결정적 증거 없이 혼미

전민련-검찰 고 김기철씨 유서 공방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철(27)씨 유서의 대필 여부를 둘러싸고 전민련과 검찰이 사실상 '사활'을 걸고 벌이고 있는 공방은 이 사건이 표면화한 지 5일이 지난 22일 현재까지 판가름이 나지 않고 있다. 이는 전민련과 검찰이 서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전민련과 검찰은 매일 자

주도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였고 밝혔다. 그러나 홍씨는 검찰에서 4일 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행방이 묘연하고 이씨는 집에 돌아온 뒤 외부와의 접촉이 일절 금지돼 있어 진술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전민련의 강정은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김씨의 강제 필적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민련이 확보한 김씨의 필적은 승의여전 총학생회가 공개한 김회관 편모, 성남 타사랑 청년학우회 창립대회에 "한정"이란 가명으로 적혀있는 서준식은 방

현재 사실 강정기관은 서준식의 5~6곳을 포함, 전국적으로 10여 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사실강정원은 공신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결과를 믿지 못하는 데다 강정결과를 믿기까지 보안유지를 확인할 수 없어 전민련은 현실적인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 또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결과는 현재 검찰수사를 돕고 있어, 조작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전민련은 서준식을 강정해 의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민련은 또 검찰이 피의인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고 이는 전민련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오세중 전민련 편집장 서장은 검찰이 주장하는 김씨 수필

감정 결과도 완전 신뢰엔 한계

유서 필적·김씨 것 다른 직접증거 제시못해 반증자료 다수 확보...공인기관 못찾아 곤혹

특히 현재 검찰이 확보한 김씨의 필적은 85년의 특 표지 필적과 86년의 주민등록증 분신신고서 필적 등 2개 뿐이어서 검찰의 입장은 상당히 미약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만약 검찰이 유서 대필을 확인한다면 김씨의 또다른 필적을 입수해 유서의 필적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의 결정적인 강정은 김씨의 자술서와 유서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얻어낸 데 있다. 특히 김씨의 자술서에는 김씨의 엄지손가락이 찍혀 있어 전민련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의 자술서와 유서, 김씨가 작성한 것이라며 전민련이 남긴 것임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김씨가 여자친구인 홍아무개씨에게 맡겼다는 메모가 모두 동일필적으로 판명된다면 따라서 업무일지와 메모는 김씨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일지와 메모의 조 작은 전민련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이 필적의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한눈에 알 수 있어, 이 필적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공신력 있는 강정은 권이 이를 인정한다면 전민련의 입장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민련의 최대 약점은 이들 필적을 감정해줄 공인 감정 기관을 확보하지 못하는 데 있다.

필적에 대해 "김씨의 행적을 알아보기 위해 수필중 김씨 주변인 물들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부분 4장을 찾아 복사한 뒤 다시 수필에 끼워넣었으나 그 과정에서 1장을 분실했다"고 해명했다. 오씨는 또 "김씨의 수필에 적힌 전화번호 가운데 수필중인 한 사람 전민련 공동회장의 전화번호가 '전선생'이라는 가명으로 적혀 있어 전화번호 복사본을 나눠 가진 실무자들에게 '이 부분은 없는 걸로 하자'라는 말을 했었다"면서 "당시 함께 있던 김씨의 여자친구인 홍씨가 이 말을 수필 자체가 없는 것으로 하자는 뜻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철환 기자>

검찰 "姜씨, 洪양수첩도 조작"

씨가 선불한것 뒤에 자기필체로 「金씨이름」 써

이미 법원에 증거보전

솔씨수첩, 姜氏첩본 수사 入社이력서도 감정의뢰

솔씨첩, 姜氏첩본 수사 入社이력서도 감정의뢰

서울지검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검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솔씨수첩, 姜氏첩본 수사 入社이력서도 감정의뢰"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지검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솔씨수첩, 姜氏첩본 수사 入社이력서도 감정의뢰"를 발표했다.

「유서대필」 자살방조죄 된다

필적防속 새 판사로

서울지검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검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서대필 자살방조죄 된다"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지검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서대필 자살방조죄 된다"를 발표했다.

관례없이 검찰 필적판부 오진에

서울지검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검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례없이 검찰 필적판부 오진에"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지검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례없이 검찰 필적판부 오진에"를 발표했다.

두 사람이 되어 3월24일
 1. 2월27일 2월28일
 2. 3월1일 3월2일
 3. 3월3일 3월4일
 4. 3월5일 3월6일
 5. 3월7일 3월8일
 6. 3월9일 3월10일
 7. 3월11일 3월12일
 8. 3월13일 3월14일
 9. 3월15일 3월16일
 10. 3월17일 3월18일
 11. 3월19일 3월20일
 12. 3월21일 3월22일
 13. 3월23일 3월24일
 14. 3월25일 3월26일
 15. 3월27일 3월28일
 16. 3월29일 3월30일
 17. 3월31일 4월1일
 18. 4월2일 4월3일
 19. 4월4일 4월5일
 20. 4월6일 4월7일
 21. 4월8일 4월9일
 22. 4월10일 4월11일
 23. 4월12일 4월13일
 24. 4월14일 4월15일
 25. 4월16일 4월17일
 26. 4월18일 4월19일
 27. 4월20일 4월21일
 28. 4월22일 4월23일
 29. 4월24일 4월25일
 30. 4월26일 4월27일
 31. 4월28일 4월29일
 32. 4월30일 5월1일
 33. 5월2일 5월3일
 34. 5월4일 5월5일
 35. 5월6일 5월7일
 36. 5월8일 5월9일
 37. 5월10일 5월11일
 38. 5월12일 5월13일
 39. 5월14일 5월15일
 40. 5월16일 5월17일
 41. 5월18일 5월19일
 42. 5월20일 5월21일
 43. 5월22일 5월23일
 44. 5월24일 5월25일
 45. 5월26일 5월27일
 46. 5월28일 5월29일
 47. 5월30일 5월31일
 48. 6월1일 6월2일
 49. 6월3일 6월4일
 50. 6월5일 6월6일
 51. 6월7일 6월8일
 52. 6월9일 6월10일
 53. 6월11일 6월12일
 54. 6월13일 6월14일
 55. 6월15일 6월16일
 56. 6월17일 6월18일
 57. 6월19일 6월20일
 58. 6월21일 6월22일
 59. 6월23일 6월24일
 60. 6월25일 6월26일
 61. 6월27일 6월28일
 62. 6월29일 6월30일
 63. 7월1일 7월2일
 64. 7월3일 7월4일
 65. 7월5일 7월6일
 66. 7월7일 7월8일
 67. 7월9일 7월10일
 68. 7월11일 7월12일
 69. 7월13일 7월14일
 70. 7월15일 7월16일
 71. 7월17일 7월18일
 72. 7월19일 7월20일
 73. 7월21일 7월22일
 74. 7월23일 7월24일
 75. 7월25일 7월26일
 76. 7월27일 7월28일
 77. 7월29일 7월30일
 78. 7월31일 8월1일
 79. 8월2일 8월3일
 80. 8월4일 8월5일
 81. 8월6일 8월7일
 82. 8월8일 8월9일
 83. 8월10일 8월11일
 84. 8월12일 8월13일
 85. 8월14일 8월15일
 86. 8월16일 8월17일
 87. 8월18일 8월19일
 88. 8월20일 8월21일
 89. 8월22일 8월23일
 90. 8월24일 8월25일
 91. 8월26일 8월27일
 92. 8월28일 8월29일
 93. 8월30일 8월31일
 94. 9월1일 9월2일
 95. 9월3일 9월4일
 96. 9월5일 9월6일
 97. 9월7일 9월8일
 98. 9월9일 9월10일
 99. 9월11일 9월12일
 100. 9월13일 9월14일
 101. 9월15일 9월16일
 102. 9월17일 9월18일
 103. 9월19일 9월20일
 104. 9월21일 9월22일
 105. 9월23일 9월24일
 106. 9월25일 9월26일
 107. 9월27일 9월28일
 108. 9월29일 9월30일
 109. 10월1일 10월2일
 110. 10월3일 10월4일
 111. 10월5일 10월6일
 112. 10월7일 10월8일
 113. 10월9일 10월10일
 114. 10월11일 10월12일
 115. 10월13일 10월14일
 116. 10월15일 10월16일
 117. 10월17일 10월18일
 118. 10월19일 10월20일
 119. 10월21일 10월22일
 120. 10월23일 10월24일
 121. 10월25일 10월26일
 122. 10월27일 10월28일
 123. 10월29일 10월30일
 124. 10월31일 11월1일
 125. 11월2일 11월3일
 126. 11월4일 11월5일
 127. 11월6일 11월7일
 128. 11월8일 11월9일
 129. 11월10일 11월11일
 130. 11월12일 11월13일
 131. 11월14일 11월15일
 132. 11월16일 11월17일
 133. 11월18일 11월19일
 134. 11월20일 11월21일
 135. 11월22일 11월23일
 136. 11월24일 11월25일
 137. 11월26일 11월27일
 138. 11월28일 11월29일
 139. 11월30일 12월1일
 140. 12월2일 12월3일
 141. 12월4일 12월5일
 142. 12월6일 12월7일
 143. 12월8일 12월9일
 144. 12월10일 12월11일
 145. 12월12일 12월13일
 146. 12월14일 12월15일
 147. 12월16일 12월17일
 148. 12월18일 12월19일
 149. 12월20일 12월21일
 150. 12월22일 12월23일
 151. 12월24일 12월25일
 152. 12월26일 12월27일
 153. 12월28일 12월29일
 154. 12월30일 12월31일

최소 사문서위조죄 가능, 자신
 도덕적 비난 대상일뿐, 주장도
 대필외 죄책개인 증거확보 관건

서울지검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검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소 사문서위조죄 가능, 자신 도덕적 비난 대상일뿐, 주장도 대필외 죄책개인 증거확보 관건"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지검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소 사문서위조죄 가능, 자신 도덕적 비난 대상일뿐, 주장도 대필외 죄책개인 증거확보 관건"를 발표했다.

明洞성당 경찰투입 검토

검찰 "姜씨代筆 확산... 강제연행 불가피"

洪양수첩 加筆경위 집중수사 金씨 본인에도 入社이력의

서울지검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검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洪양수첩 加筆경위 집중수사"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지검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洪양수첩 加筆경위 집중수사"를 발표했다.

洪양강입상택서 진출

솔씨첩주장 科搜研 필적감정 못민어

서울지검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검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洪양강입상택서 진출"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지검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洪양강입상택서 진출"를 발표했다.

서울지검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검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솔씨첩주장 科搜研 필적감정 못민어"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지검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솔씨첩주장 科搜研 필적감정 못민어"를 발표했다.

筆跡公방 왜 오래 끝나...

遺書 사건 '양측 속셈있다. 비난 여론'



정말 다르다. 주장... (Caption text describing the photo)

분위기 전환용... 여행지연 시간 벌기 위해 출두 늦춰

【서울 22일 특파원】... (Main article text regarding the case and public opinion)

【서울 22일 특파원】... (Continuation of the main article text)

유서筆跡, 누구말이 맞나

다들 어떤 주장하든 못 믿겠어... (Introductory text for the handwriting analysis article)

홍씨 주장

- ① 김씨 분신 뒤 자체 대책회의서 은폐
- ② 홍양수첩, 김기철은姜씨가 써준것
- ③姜씨,가명쓰며 필체여러가지사용

주요인 김기철은... (Text supporting the Hong family's claims)

검찰 주장

주요인 김기철은... (Text supporting the prosecution's claims)

소환·불응 平行線 수사장기화될듯

【서울 22일 특파원】... (Text discussing the legal proceedings and the possibility of a long trial)

姜씨 身柄 확보 못해 「筆跡 수사」 踏歩

明洞성당 「進入」 싸고 고심



○全민聯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기자들을 만나 송호숙씨 유서대필과 관련, 「더이상 대필여부 관방은 불이지 않겠다」며 관계수사에 협력 뜻을 밝혔다.

【서울 23일 특파원 송호숙 기자 보도】 송호숙씨 유서대필 사건이 수사당국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사되고 있다. 수사당국은 송호숙씨 유서대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3일 오전 명동성당에 들어가 송호숙씨 유서대필과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하려 했으나, 성당 관계자들의 반대로 인해 실패했다. 수사당국은 송호숙씨 유서대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3일 오전 명동성당에 들어가 송호숙씨 유서대필과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하려 했으나, 성당 관계자들의 반대로 인해 실패했다.

오늘 추기경 방문 협조요청 집행날짜 未定! 배후행적 보강수사 검찰

【서울 23일 특파원 송호숙 기자 보도】 송호숙씨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송호숙씨 유서대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3일 오전 명동성당에 들어가 송호숙씨 유서대필과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하려 했으나, 성당 관계자들의 반대로 인해 실패했다.

“洪양·姜씨 대질시키자”

全민聯 요구 신변보장판 수사응낙 뜻비취

【서울 23일 특파원 송호숙 기자 보도】 송호숙씨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송호숙씨 유서대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3일 오전 명동성당에 들어가 송호숙씨 유서대필과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하려 했으나, 성당 관계자들의 반대로 인해 실패했다.

社說

全民聯, 수사에 응해야 한다

【서울 23일 특파원 송호숙 기자 보도】 송호숙씨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송호숙씨 유서대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3일 오전 명동성당에 들어가 송호숙씨 유서대필과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하려 했으나, 성당 관계자들의 반대로 인해 실패했다.

검찰 왜 '強攻' 망설이나

유서 代筆 수사 지연

공권력 투입 과장 우려 신중자세

자살방조 物證 확보 실패 추측도

【서울 23일 특파원 송호숙 기자 보도】 송호숙씨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송호숙씨 유서대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3일 오전 명동성당에 들어가 송호숙씨 유서대필과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하려 했으나, 성당 관계자들의 반대로 인해 실패했다.

시론

지난 5월20일 나는 장기준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친인척인 장 임철형씨(이하 장씨)가 친인척인 장씨를 고 김기철씨의 수형원 본을 서술제명절때 제출하는 자리에 동행했다.

장기철씨는 장씨에게 수형원본을 제출하고 김수형과 수형원본 2부를 받았다. 내소문으로 직접 본 김씨의 수형원본은 김씨가 아니면 기재할 수 없는 내용, 예를 들면 '아버지', '누나', '박내', '전 누나' 등으로는 가족의 신상명세와 그 일어난 전회번호 제3자 특히 친인척 관계자등은 기재할 수 없는 김씨 친구들의 이름과 전화 번호 등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김씨의 수형원본이 분명하다. 수형원의 필적은 육안으로도 김씨의 필적과 동일하다. 따라서 나는 김씨 수형이 김철형에 제출되었으니 이른바 유서 '대필' 시비는 곧 종결될 것으로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장기철씨와 함께 김철형을 나섰다. 그런데 도착해도 다음날 초간신 본 등에는 김철형이 친인척명에서 제출한 김씨의 수형이 조작되었고 상당부분이 가릴되었다.



이석대 (변호사)

어처구니 없는 검찰 '대필' 수사

고 발표할 것으로 보도되어 있다. 나는 이 검찰 발표를 보고 난 후 충격을 받았다. 첫째는 내가 김씨의 수형원본을 김철형에 제출하기에 앞서 친인척인 임철형씨(이하 임씨)를 비롯한 친인척 관계자들이 수형원본을 제출하느냐 마느냐의 여부에 관해서 서로 논쟁하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논쟁의 초점은 수형원에 기재된 친인척 '박내' 등 김씨와 관련된 것이었다. 즉 수형원이 김철형에 제출되는 경우 임씨에게 기재된 신상명세 및 이력을 영리하게 왜곡되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허위임을 감수하고라도 진실은 밝히기 위해 헌신은 있는 그대로의 형상으로 제출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런데 김씨의 수형이 조작되었다는 검찰의 발표는 내 눈으로 확실히 보고도 느낀 명백한 사실을 송구리째 뒤집어엎는 것이었다. 둘째는, 검찰이 공인의 대표자로서 최소한의 엄격성 양심을 갖고 있다면 수형원본이 제출된 지 한 하루도 안되어 조작문은 하는 발표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나의 부속한 김철형에게서도 수형원본의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기 위하여는 상당한 물리화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수형원을 구성하고 있는 종이의 질을 조사하고 필적을 확인해야 하며, 연호되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된 것인지도 알아야 하는 등 아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하루 만에 이 모든 분석을 끝내고 조작되었다고 단정할

수형원이 있던 87년에 동생에게 보낸 편지의 원본을 여러 봉투 안에 넣어 두었다. 나는 유서나 국인으로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장기간의 필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김씨 수형이 김철형에 제출되었을 경우 임씨에게 기재된 신상명세 및 이력을 영리하게 왜곡되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허위임을 감수하고라도 진실은 밝히기 위해 헌신은 있는 그대로의 형상으로 제출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김철형은 서간까지 주로 김씨 여사(이하 김씨)의 친술과 국인으로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장기간의 필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김씨 수형이 김철형에 제출되었을 경우 임씨에게 기재된 신상명세 및 이력을 영리하게 왜곡되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허위임을 감수하고라도 진실은 밝히기 위해 헌신은 있는 그대로의 형상으로 제출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나와 김기철씨가 검사에게 유서 4일 이상 수사기관에서 유치하고 조사한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고 증거, 장사는 조사를 위해 부부가 위임했다. 부부 문제 때문에 김기철씨가 자식에게 불행행위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부부의 부부가 어떻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부부의 부부가 어떻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부부의 부부가 어떻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다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문제이다. 김철형은 김씨가 80년대에 김철형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현재 김철형이 김씨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판결한 것은 육안으로도 김씨의 필적과 동일하다. 따라서 나는 김씨 수형이 김철형에 제출되었으니 이른바 유서 '대필' 시비는 곧 종결될 것으로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장기철씨와 함께 김철형을 나섰다. 그런데 도착해도 다음날 초간신 본 등에는 김철형이 친인척명에서 제출한 김씨의 수형이 조작되었고 상당부분이 가릴되었다.

“金씨수첩, 변조됐다”

검찰 “원래 형태와 달라” 감정의뢰

明洞성당 경찰투입 금명결정 서강대 총학생회도 수사

金씨, '본신' 전 이를 간행적 진중조사

【서울 23일 특파원 특보】 서울 서강대 총학생회도 김기철씨(이하 김씨)의 수형원본을 김철형에 제출하는 자리에 동행했다. 김씨는 김철형의 수형원본을 김철형에 제출하는 자리에 동행했다. 김씨는 김철형의 수형원본을 김철형에 제출하는 자리에 동행했다.

代筆열쇠 洪양 어디있다

【서울 23일 특파원 특보】 서울 서강대 총학생회도 김기철씨(이하 김씨)의 수형원본을 김철형에 제출하는 자리에 동행했다. 김씨는 김철형의 수형원본을 김철형에 제출하는 자리에 동행했다. 김씨는 김철형의 수형원본을 김철형에 제출하는 자리에 동행했다.

사실상 영금, 公開진술 요구

가족보호아래, 安全한 곳에

【서울 23일 특파원 특보】 서울 서강대 총학생회도 김기철씨(이하 김씨)의 수형원본을 김철형에 제출하는 자리에 동행했다. 김씨는 김철형의 수형원본을 김철형에 제출하는 자리에 동행했다. 김씨는 김철형의 수형원본을 김철형에 제출하는 자리에 동행했다.

"목적위해 생명 道具化해선 안되죠"

朴弘西江大총장 答覆 인터뷰



「어둠의 세력」은 실존단체 아닌 죽음선동하는 사회적 분위기

【서울 23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西江大 총장 박홍(57)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생명윤리법 제정 반대」 집회에서 「어둠의 세력」은 실존단체가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를 죽음으로 선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생명윤리법 제정은 생명체를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목적위해 생명을 도구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명윤리법 제정은 생명체를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목적위해 생명을 도구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생명윤리법 제정은 생명체를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목적위해 생명을 도구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생명윤리법 제정은 생명체를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목적위해 생명을 도구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생명윤리법 제정은 생명체를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목적위해 생명을 도구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생명윤리법 제정은 생명체를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목적위해 생명을 도구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焚身수사 증거확보 시간벌기

【서울 23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수사기관은 증거확보를 위해 피의자를 불태우는 '焚身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기관은 증거확보를 위해 피의자를 불태우는 '焚身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기관은 증거확보를 위해 피의자를 불태우는 '焚身수사'를 벌이고 있다.

“焚身계획 밝히며 金씨 올인

【서울 23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내 글씨체 두가지 말해... 「焚身계획 밝히며 金씨 올인」

내 글씨체 두가지 말해... 「焚身계획 밝히며 金씨 올인」

내 글씨체 두가지 말해... 「焚身계획 밝히며 金씨 올인」

내 글씨체 두가지 말해... 「焚身계획 밝히며 金씨 올인」

수사기관은 증거확보를 위해 피의자를 불태우는 '焚身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기관은 증거확보를 위해 피의자를 불태우는 '焚身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기관은 증거확보를 위해 피의자를 불태우는 '焚身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기관은 증거확보를 위해 피의자를 불태우는 '焚身수사'를 벌이고 있다.

明洞성당 공권력 투입 검토

鄭검찰총장 "姜씨 소환 불응땐 강제연행"

事前영장 在野인사 포함

金씨 접촉·수첩보관 全民聯 8명 소재 수사

김철·김시 필적자료 2점 추가인수... 김정의 필

【서울 24일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장 김철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회의를 열어 김씨 접촉과 수첩보관 등 8명 소재 수사에 대해 사전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철은 회에서 "김씨 접촉과 수첩보관 등 8명 소재 수사에 대해 사전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히 김정의 필적자료 2점을 추가인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철은 회에서 "김씨 접촉과 수첩보관 등 8명 소재 수사에 대해 사전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히 김정의 필적자료 2점을 추가인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철은 회에서 "김씨 접촉과 수첩보관 등 8명 소재 수사에 대해 사전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히 김정의 필적자료 2점을 추가인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金基高씨 분신 이틀전 녹색펜으로 수첩 메모

【서울 24일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장 김철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회의를 열어 김씨 접촉과 수첩보관 등 8명 소재 수사에 대해 사전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철은 회에서 "김씨 접촉과 수첩보관 등 8명 소재 수사에 대해 사전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히 김정의 필적자료 2점을 추가인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개장소서 쓴 글씨 제출땐 姜씨 필적 감정용의"

김철·김시 필적자료 2점 추가인수... 김정의 필

【서울 24일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장 김철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회의를 열어 김씨 접촉과 수첩보관 등 8명 소재 수사에 대해 사전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철은 회에서 "김씨 접촉과 수첩보관 등 8명 소재 수사에 대해 사전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히 김정의 필적자료 2점을 추가인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철·김시 필적자료 2점 추가인수... 김정의 필

【서울 24일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장 김철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회의를 열어 김씨 접촉과 수첩보관 등 8명 소재 수사에 대해 사전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철은 회에서 "김씨 접촉과 수첩보관 등 8명 소재 수사에 대해 사전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히 김정의 필적자료 2점을 추가인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유서사건 기사자료

김철·김시 필적자료 2점 추가인수... 김정의 필

전민련 반박자료 또 공개 "김씨 흘린-정자체 동시기록...유서친필 확인"

전민련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동 1층 101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를 공개했다.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는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로 공개했다.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는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로 공개했다.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는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로 공개했다.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는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로 공개했다.

검찰 '필적수사' 후퇴

"홍씨 진술내용은 직접증거 못돼" 밝혀 3중 추가 감정의회...결과에 승복 방침

전민련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동 1층 101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를 공개했다.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는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로 공개했다.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는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로 공개했다.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는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로 공개했다.

'유서대필' 검찰수사 중간점검

전민련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동 1층 101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를 공개했다.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는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로 공개했다.

분신배후' 예단 '짜맞추기' 인상

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일반적으로 해석
전민련 내용은 필적 반박 증거 제시 못해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는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로 공개했다.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는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로 공개했다.

한겨레

검찰 '필적수사' 후퇴

"홍씨 진술내용은 직접증거 못돼" 밝혀 3중 추가 감정의회...결과에 승복 방침

전민련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동 1층 101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를 공개했다.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는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로 공개했다.

김씨는 이차 관련 "운동선수는...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는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로 공개했다.

의혹 큰 박창수씨 죽음

이 두사람은 각각 기업과 재야운동단체
에서 민주화운동에 몸바친 젊은이였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 대변되는 것은 이
죽음을 대하는 경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수하조직인 검찰과 언론의 태도이다. 또
박씨에 대해서는 범민주양심세력이, 김씨
에 대해서는 공안검찰이 각각 그 죽음의
배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도 대조
적이다.

별다른 상처도 없어

대부분의 언론이 검찰이 제기하지 않은
의문에 대해서는 '의문을 느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박씨는 유서 한조각 없이
죽은자가 되어 발이 없고, 유족과 동료들

'유서대필' 파문에 묻힌 '의문사'

김씨의 유서가 선풍 대필에 의한 것이
더라도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이지만, 박씨
의 죽음의 배후가 만약 의심대로라면 그
것은 극악한 범죄인 것이다.

강경대서 타살사건 이후 시국을 둘러싼
잇따른 죽음을 중에서 두가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건이 있다.

의문사

김씨는 이차 관련 "운동선수는...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는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로 공개했다.

의문사

김씨의 유서가 선풍 대필에 의한 것이
더라도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이지만, 박씨
의 죽음의 배후가 만약 의심대로라면 그
것은 극악한 범죄인 것이다.

의문사

김씨의 유서가 선풍 대필에 의한 것이
더라도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이지만, 박씨
의 죽음의 배후가 만약 의심대로라면 그
것은 극악한 범죄인 것이다.

김씨는 이차 관련 "운동선수는...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는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로 공개했다.

의문사

김씨는 이차 관련 "운동선수는...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는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로 공개했다.

의문사

김씨의 유서가 선풍 대필에 의한 것이
더라도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이지만, 박씨
의 죽음의 배후가 만약 의심대로라면 그
것은 극악한 범죄인 것이다.

의문사

김씨의 유서가 선풍 대필에 의한 것이
더라도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이지만, 박씨
의 죽음의 배후가 만약 의심대로라면 그
것은 극악한 범죄인 것이다.

김씨는 이차 관련 "운동선수는...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는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로 공개했다.

의문사

김씨는 이차 관련 "운동선수는...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는 유서 친필 확인을 위한 자료로 공개했다.

의문사

김씨의 유서가 선풍 대필에 의한 것이
더라도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이지만, 박씨
의 죽음의 배후가 만약 의심대로라면 그
것은 극악한 범죄인 것이다.

의문사

김씨의 유서가 선풍 대필에 의한 것이
더라도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이지만, 박씨
의 죽음의 배후가 만약 의심대로라면 그
것은 극악한 범죄인 것이다.



권영길

개인판단 의존... '진실성' 시비 많아

과학수사원 유서 '대필' 감정 신뢰성 논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는 과연 100%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본인이 작성한 고 김기철씨의 유서대필 문제를 둘러싼 검찰과 선인연속의 맹목한 공방전이 끊임 없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적 부분이다 할 필적감정 결과의 신뢰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김씨의 여사친인 홍아부 개척자 김철에서 한 김순이 강기철씨의 유서대필 혐의의 직접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24일 말리침에 따라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는 필적이 어떤 사건에서 유서대필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로 남게 됐다.

김철은 유서대필 용의자로 지목한 강씨가 80년 민정당 가학동 연수원 필적동맹 당시 인형 등 은 자술시 필적과 김씨가 쓴 신화라는 간첩 김씨에 따라 강

담당실장 '허위감정' 구속 곤욕 치르기도 강씨 혐의 '유일' 증거... 흘림체 비교돼야

의 유서대필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철의 이런 주장은 필적감정 자체가 절대적인 '과학'과 '자유'를 갖고 있다는 확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적감정에 대해 100%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으며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국과수의 판정이 구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실의 한 연구원은 "확인된 사람이 쓴 글씨라도 필기 등을 나타내면 동일한 판정이 나오지 않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판정을 위해 '감정사'라는 글씨를 정사체와 흘림체로 써 보인 뒤 "이 판 보는 앞에서 한 사람이 한 글씨를 써서 판정을 하면 판정 판정에 '감정판'으로 나온 수에 있다"고 실제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또 김씨의 정사체 필적과 유서가 전혀 다른 사람의 글씨로 보이는 일반인의 사자라는 예로 '유사'라고 많이 있으나 판정을 내릴 수는 없었던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런 설명은 필적감정 자체가 일반인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김씨와 강씨의 필적 등을 감정 의뢰해 나타난 결과도 이번 사건에서 국과수측이 오류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충분히 엿보게 해주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김씨 수필에 대한 필적감정에서 이어 지난 23일 1. 김씨의 유서 2. 전교로 된 주사부 발행부의 필기철이 김씨 3. 실남 '퇴출' 발행부의 김씨 4. 강기철씨의 민중당 보고서 등 4가지 필적을 동일감정원인 '중앙인명필적감정원'에 추가로 감정 의뢰한 바 있다.

감정을 맡은 중앙인명필적감정원이 내린 결론은 "이름 2 3 4. 필적과 유사하는 특질비를 상반으로 이종(異種) 여부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원측은 "유서와 가솔 비슷한 필적은 2번 전교로 원주자가 발행부 김씨이고 그 다음이 3번 실남 '퇴출' 발행부 김씨로 나타났으며 4번 김씨의 민중당 보고서가 가장 유서 필적과 닮고 나타났다는 개인적 소견을 밝혔다. 즉 동일한 필적 여부에 대해 정황하고 확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김씨

의 흘림체 필적은 한 유서 필적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판정 결과에 '개인적 편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철 강씨를 개인 판단에 기댄 수밖에 없는 특성 때문에 감정 결과의 옳고 그름은 일정 시비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수없이 많다. 특히 김씨가 김철 민사소송의 경우 감정원 자신이 허위 감정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까지도 종종 발생하는 실정이다.

실제 이번 강씨 자술서를 감정한 국과수 분석실 책임자도 80년 2회 허위감정 혐의로 구속되는 곤욕을 치르기도 할 만큼 감정의 정확성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실 책임자의 경우 결국 부위가 입증된 부죄의진 혐의로 당시 감정 대상이었던 민중당의 위조 여부에 대해 사실감정원측과 국과수측이 5대1로 서로 다른 판정을 내렸다는 대북은 '진실'에 사할된 감정이라고 단언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구속사건이 일어난 이후 국과수는 발행의 소지가 많은 민사소송상의 감정은 일찍이 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한겨레신문>이 자체적으로 사한 필적감정기원에

김씨筆跡 3종 추가감정

검찰 유서와 일치여부 최종판정키로

『遺書대필』공방장기화 조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유서대필 의혹을 둘러싼 김기철씨의 유서와 강기철씨의 필적감정 결과를 놓고 검찰과 선인연속의 맹목한 공방전이 끊임 없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적 부분이다 할 필적감정 결과의 신뢰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김씨의 여사친인 홍아부 개척자 김철에서 한 김순이 강기철씨의 유서대필 혐의의 직접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24일 말리침에 따라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는 필적이 어떤 사건에서 유서대필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로 남게 됐다.

김철은 유서대필 용의자로 지목한 강씨가 80년 민정당 가학동 연수원 필적동맹 당시 인형 등 은 자술시 필적과 김씨가 쓴 신화라는 간첩 김씨에 따라 강

『遺書대필』공방장기화 조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유서대필 의혹을 둘러싼 김기철씨의 유서와 강기철씨의 필적감정 결과를 놓고 검찰과 선인연속의 맹목한 공방전이 끊임 없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적 부분이다 할 필적감정 결과의 신뢰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김씨의 여사친인 홍아부 개척자 김철에서 한 김순이 강기철씨의 유서대필 혐의의 직접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24일 말리침에 따라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는 필적이 어떤 사건에서 유서대필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로 남게 됐다.

김철은 유서대필 용의자로 지목한 강씨가 80년 민정당 가학동 연수원 필적동맹 당시 인형 등 은 자술시 필적과 김씨가 쓴 신화라는 간첩 김씨에 따라 강

검찰·全民聯 결정적 물증 없어

검찰·全民聯 결정적 물증 없어
상환변화 없는 한 대치상태 계속될 듯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유서대필 의혹을 둘러싼 김기철씨의 유서와 강기철씨의 필적감정 결과를 놓고 검찰과 선인연속의 맹목한 공방전이 끊임 없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적 부분이다 할 필적감정 결과의 신뢰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김씨의 여사친인 홍아부 개척자 김철에서 한 김순이 강기철씨의 유서대필 혐의의 직접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24일 말리침에 따라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는 필적이 어떤 사건에서 유서대필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로 남게 됐다.

김철은 유서대필 용의자로 지목한 강씨가 80년 민정당 가학동 연수원 필적동맹 당시 인형 등 은 자술시 필적과 김씨가 쓴 신화라는 간첩 김씨에 따라 강

구분	성명	주소
1	김기철	서울시 강남구
2	강기철	서울시 강남구
3	김철	서울시 강남구
4	김순	서울시 강남구
5	홍아부	서울시 강남구
6	김철	서울시 강남구
7	김철	서울시 강남구
8	김철	서울시 강남구
9	김철	서울시 강남구
10	김철	서울시 강남구



대책회의 明洞성당 농성-철수 줄다리기

「불편한 관계」 1주일의 속사정

대책회의의 대안...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the church's stance and the surrounding situation.)

대책회의의 대안...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the church's stance and the surrounding situation.)

신도항의-공권력 不許 고민 明洞성당
가장안전한곳. 판단 버티기 대책회의

신도항의-공권력 不許 고민 明洞성당
가장안전한곳. 판단 버티기 대책회의

代筆是非 判리 가려라

대책회의의 대안...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the church's stance and the surrounding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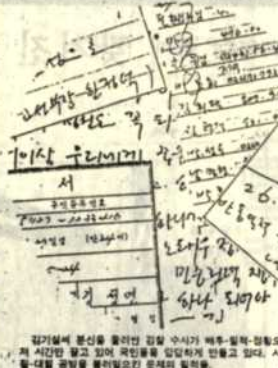
검찰 「김씨분신」배후-필적-정황논쟁 “시국무마용 카드”의혹도

그러나 정민원은 이날 다시 검찰의 수첩과 김씨의 편지를 공개, 수첩 필적과 유서 필적은 일치한 김씨가 지난 87년 하선고로 자존심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며 피의자 혐의를 받아낼 것임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민원은 이날 다시 검찰의 수첩과 김씨의 편지를 공개, 수첩 필적과 유서 필적은 일치한 김씨가 지난 87년 하선고로 자존심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며 피의자 혐의를 받아낼 것임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민원은 이날 다시 검찰의 수첩과 김씨의 편지를 공개, 수첩 필적과 유서 필적은 일치한 김씨가 지난 87년 하선고로 자존심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며 피의자 혐의를 받아낼 것임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민원은 이날 다시 검찰의 수첩과 김씨의 편지를 공개, 수첩 필적과 유서 필적은 일치한 김씨가 지난 87년 하선고로 자존심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며 피의자 혐의를 받아낼 것임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방불명 홍씨 진술 객관성없어 김씨 「사건전날행적」수사에 초점

이런 시점에서 박 총장의 '김은 배후' 발언과 함께 순식간에 홍씨를 둘러싸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홍씨를 둘러싸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박 총장의 '김은 배후' 발언과 함께 순식간에 홍씨를 둘러싸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홍씨를 둘러싸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박 총장의 '김은 배후' 발언과 함께 순식간에 홍씨를 둘러싸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홍씨를 둘러싸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박 총장의 '김은 배후' 발언과 함께 순식간에 홍씨를 둘러싸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홍씨를 둘러싸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박 총장의 '김은 배후' 발언과 함께 순식간에 홍씨를 둘러싸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홍씨를 둘러싸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감정」公正性확보가 열쇠

유서筆跡 眞贋의 인정

「유서」의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소셜리」바탕 수사박차

明洞성영의 公판권력 투입나선듯

「소셜리」바탕 수사박차. 明洞성영의 公판권력 투입나선듯.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代筆 단정예비 약

제3기 판서 제정실 실행 앞두고

유서代筆 단정예비 약. 제3기 판서 제정실 실행 앞두고.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代筆 단정예비 약. 제3기 판서 제정실 실행 앞두고.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代筆 단정예비 약. 제3기 판서 제정실 실행 앞두고.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金씨수첩 변조」鑑定

검찰서 科搜研통보 공개 찢겨진 3장 절취선 안맞아



유서 1대 찢어진 부분

수첩 변조 수사본

유서代筆 眞贋을 위한 것, 眞贋을 認는 3가지 기준

金民聯

「판서」기재 부분 眞贋에 眞部 眞贋을 眞정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유서 眞贋을 判定하는 唯一의 標準은 筆跡의 眞贋이다.

김씨수첩 '조작' 쟁점화

검찰 쪼갬 부분 절지선 일치 않는다 전민련 김씨 고유행적 많아 대필 불가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철(27)씨 본인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5일 전민련이 제출한 김씨의 수첩이 조작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씨는 전민련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유서대필 공방은 수첩 조작시비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정서와 속필상의 변화상에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상이한 필적으로 사료된다"는 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이에 따라 수첩은 위조된 것이 틀림없으며 유서는 승진 김씨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따르면 수첩에서 떨어진 전민련호 기입 부분이 3장의 절지선과 남은 부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감정한 결과 서로 일치하지 않고 필입(술 난 자국)도 알맞지 않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절지선이 일치한다는 공식 감정결과 외에 떨어진 부분을 남은 부분과 맞췄을 때 일치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구부름보를 국가수부부터 받았다"면서 "모자라는 경우는 생길 수 있으나 일치하는 부분은 생길 수 있는 분명한 다른 수첩에서 찾아낸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런 불일치는 김씨가 자신의 수첩 가운데 전민련호 부분만을 찾아내고 김씨의 수첩을 보고 그대로 옮겨붙은 뒤 이를 끼워넣어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철은 감정대상이 된 김씨의 필적은 △주인등록증 분실신고서 △누나에게 보낸 편지지 끝까지 △이어서 △편지 △카드 등 5종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유서와 수첩의 필적이 동일하지 여부의 감정회화는 아직 하지 않았으나 국가수부부터 "육안으로 봐 같은 필적으로 보인다"는 구부름보를 받았으며 곧 정밀감정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민련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 수첩의 개인 연필의 부분을 찾게 된 것은 김씨의 사인이 안치된 열안실에서 같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여러대의 전화기를 통해 전지들에게 연락하기 위해서였다"며 "몇었다 불인 부분도 김씨의 수첩 원본임에

불림었다"고 말했다. 전민련은 이어 "이러한 사실은 몇어건 수첩 일부에 적힌 김씨 친척과 친구들의 명단에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제의 수첩에는 승진 김씨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이 다수 들어 있어 김씨가 수첩을 위조했다는 검찰 주장에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수첩 4월27일자 약속란에 쓰인 '승진'이라는 메모의 인물은 전민련 전 사회부장 남중현(28)씨로 김씨는 남씨에 대해 '형이란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씨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기철은 82학번 동료여서 서로 반말을 했으며 승진 김씨는 한 학년 아래인 83학번이어서 나에게 평소 형이란 호칭을 써왔다"고 증언했다.

또 5월6일자 약속란에 '이제'라고 쓰여 있는 것에 대해 이희복(21·방송통신대 서클인 소의 새벽을 지도해와 돌아오는 사이지만 김씨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라며 "5일 오전 10시부터 6일 오후 3시까지 김씨를 만나 함께 지냈으며 그 시간에 김기철씨를 만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수첩 4월18·19·20일자 등에 자주 나타난 '원진래이온' 회사는 김씨가 속해 있는 사회부 업무와 관련된 회사로 총무부에 속해 있는 김씨는 이 회사와 전혀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전민련측은 밝혔다.

4월18일자의 '목요일에 모금 3,500' 대목도 지난 4월18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목요일에 당시 승의여전 학생회가 동우전대 사건과 관련해 낸 금액으로, 승의여전 학생회장 이보형(20·윤재장학2)씨는 "승진 김씨가 당시 기독교회관 지하다방에서 이 금액을 수첩에 써넣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5월10일자에 쓰인 '소세'는 김씨가 생전에 지도해온 방송통신대 서클인 '소의새벽'의 약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김씨와 이 서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가수부가 지난 15일의 1차감정 때에는 유서와 김씨의 주민등록 분실신고서에 대해 '이종(異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으로 감정했다가 이번 3차감정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상이한 필적으로 사료됨'이라고 감정한 것도 미심쩍은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 '損益다지기' 무심

당투입 성당 명洞 공권력

姜씨연행 차원이나 在野와 全面戰 불가피 改闢을 둘러, 결정적 物證 없는 한 自제할 듯 全民聯측과 姜씨출두線서 타협 가능성도

검찰은 유서와 수첩의 필적이 동일하지 여부의 감정회화는 아직 하지 않았으나 국가수부부터 "육안으로 봐 같은 필적으로 보인다"는 구부름보를 받았으며 곧 정밀감정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유서 代筆 공방 사슬상 일관력

전민련측은 유서대필 공방이 유서와 수첩의 필적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유서대필 공방이 사슬상 일관력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서대필 공방은 유서와 수첩의 필적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유서대필 공방이 사슬상 일관력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첩은 姜씨 것, 의도적 은폐 반증 훼손부분 치중筆體 변화 언급 미비

수첩은 姜씨 것, 의도적 은폐 반증
훼손부분 치중筆體 변화 언급 미비

수첩은 姜씨 것, 의도적 은폐 반증
훼손부분 치중筆體 변화 언급 미비

수첩은 姜씨 것, 의도적 은폐 반증
훼손부분 치중筆體 변화 언급 미비

미주알

김철이 너무 사투리 거냐?

유서공방

제야의 차를 운전하!

드러나, 알!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김씨 유서-수첩 필적 동일” 밝혀지자 검찰 “수첩 조작” 수사방향 돌려

전면 사죄부장 김기철(27)이 본인과 유서 수첩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강서부(장관속 부장검사)는 25일 전면 사죄에 동의한 김씨와 유서 수첩에 대한 필적 검사 결과 “본인의 필적이 김기철의 필적과 일치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됨”을 인정하고 유서 수첩 조작을 인정하는 등 수사 방향을 돌려 검찰 “수첩 조작” 수사방향 돌려

김씨는 김씨가 자신의 수첩에 있는 진화번호를 찾아내고 김씨의 수첩을 그대로 복사한 뒤 이를 김기철의 수첩에 붙여넣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기철의 수첩에 붙여넣은 진화번호를 복사한 뒤 이를 김기철의 수첩에 붙여넣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기철은 김기철의 수첩에 붙여넣은 진화번호를 복사한 뒤 이를 김기철의 수첩에 붙여넣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기철은 김기철의 수첩에 붙여넣은 진화번호를 복사한 뒤 이를 김기철의 수첩에 붙여넣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기철은 김기철의 수첩에 붙여넣은 진화번호를 복사한 뒤 이를 김기철의 수첩에 붙여넣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나는 본인이 작성한 김기철의 유서대필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철의 어머니이다. 전면 사죄하는 유서대필 공방을 지켜보다 못해 글을 씀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것도 기온이 필적으로 믿고 하지 않았는지요? 검찰 산하의 고도소에서 보도한 일화에 있고 김기철과 김기철 도장까지 찍힌 편지를 믿지 못한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이러한 사람의 본인이 작성한 유서대필 혐의가 유서대필이 아닌 것인지 확실한 일이고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유서의 필적이 죽은 사람 것인가? 확실한 것이 상의일 것 같은데 내가 느끼는 것은 살아있는 김기철이 필적하고 수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아들 누명 억울...진실 밝혀질 것

“유서 대필” 혐의 김기철씨 어머니 글

전적으로 우리 아이 글에는 필적으로 약간 기온이 있다구요. 그리고 그의 글씨는 약간 길고 달리고요. 어떻게 이 두 가지 글씨를 같은 사람이 썼다고 생각할까요?

나는 후배들과 술 먹은 것이 대개의 죄로 문란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처음 대개의 얘기가 보도됐을 때 아이 전면 사죄가 죽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술자리를 마련하여 축하하는 마음을 품어 있었나 하고 내 나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의 용량과 이렇지않고 그리고 제도 안 하는 기온의 후배 김과가 낚여서 한이었던

가속들의 이 분노와 공포를. 기자분들은 필적이나 하신지요? 제안을 받고 필적 작성할 때 필적은 필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김기철씨 분신’ 관련 조사 받은 이영미씨

인터뷰

김기철씨 분신사건과 관련, 김씨의 여자친구 홍아무개(25)씨와 함께 유력한 참고인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이영미(25·여·속셈학원 강사·사·사)씨는 25일 “검찰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 하기보다 방향을 정해놓고 이에 유리한 진술만을 얻어내려 했다”면서 “검찰의 수사 발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억측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발언을 열었다.

받은 이씨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부모의 우려와 검찰수사관의 감시·미행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이 자유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연행시기는 언제였고 검찰의 수사태도는 어떠했는가? -16일 오전 8시30분께 출근 길에 연행돼 18일 오후 6시께 풀려났다.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으며 대체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서 받은 인상은? -개별적 사실의 파악보다 어떤 예단을 가지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얻어내려는 것 같았다. 한 예로 강씨 집에서 가져온 것이라면서 복사된 메모지의 일부를 보여주며 강씨의 글씨인지 여부와 함께 적힌 내용이 나와의 관계를 다룬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둘 다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등과 함께 김씨 분신 뒤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10일과 12일 두차례에 걸쳐 강·홍씨, 김진수(단국대 동창)씨와 만났다. 그러나 김철수사와 관련한 얘기는 홍씨가 먼저 꺼냈고 대화도 우려와 위로 수준에 머물렀다. 검찰이 ‘대책회의’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김씨 분신 전 강씨와 언제 만났나? =5일 나의 집으로 강·홍·김진수씨가 놀러와 함께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신 일이 있고 7일 저녁 7시30분께 강씨와 놀이 만났던 일이 있다. 두차례 모두 분

“검찰발표 상상조차 못할 억측 강씨는 분신사실 사후에 알아 방향 미리 정해놓고 수사진행한 인상

니 혹시 지난 2월에 강씨와 소주를 마시고 다룬 일이 있느냐고 물어 소주를 마신 적도 있고 다룬 일도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나중에 언론보도를 보니 이 메모지가 바로 홍씨가 지난 2월 김기철씨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검찰에 제출한 것이었고 김철수는 이 메모지를 강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검찰이 만약 내 진술을 통해 강씨에 대한 예단을 더 굳혔다면 그것은 큰 오류이다. -검찰은 당신이 강씨·홍씨

신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7일 만났을 때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적인 얘기를 주고 받다가 다음날이 어버이날이어서 강씨는 내가 사준 케이션선을 들고 오후 10시쯤 헤어져 집으로 돌아갔다. -혹시 강씨가 김씨의 분신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는가? -전혀 받지 못했다. 분신일인 8일 아침에 출근해 뉴스를 통해 김씨가 분신한 사실을 알고 강씨 집으로 전화했을 때 강

전화를 해 “기온이한테 무슨 일이 있느냐. 울먹이면서 밥도 안 먹고 나갔다”며 걱정했던 것을 보면 몰랐던 것이 틀림없다. -검찰에서 홍씨를 만났나? =17일 아침에 검찰청 화장실에서 한번 만났다. 홍씨는 반가워하기보다 무척 당황해하는 것 같았으며 옆에 여자수사관이 붙어 있던 탓인지 몰라도 여러 얘기를 하지 말자는 눈짓을 보내며 인사치레 말 외에는 나누지 못했다. 피곤해하는 모습이었다. <임범 기자>

고 김기설씨 분신 이전 행적

분신자살한 전민련 분신자살... 김기설씨(49)는 분신... 김기설씨는 분신... 김기설씨는 분신...

김기설씨는 분신... 김기설씨는 분신... 김기설씨는 분신...

수소문

수소문... 김기설씨는 분신... 김기설씨는 분신...

수소문... 김기설씨는 분신... 김기설씨는 분신...

행방 수 소문

행방 수 소문... 김기설씨는 분신... 김기설씨는 분신...

행방 수 소문... 김기설씨는 분신... 김기설씨는 분신...

행방 수 소문

행방 수 소문... 김기설씨는 분신... 김기설씨는 분신...

행방 수 소문... 김기설씨는 분신... 김기설씨는 분신...

검찰 "姜씨 代筆" 최종결론

金씨수첩도 가짜... 더 攻防 않겠다.

수첩절취선 一致알고... 筆壓흔적 보이지않아... 國科搜

焚身동기 11시국에대한개탄

決行 3일전 만난 동료여학생이 밝혀 가족들은 基高필체 아니다. 의혹제기



姜基勳씨에 사전영장

檢察, 유서代筆, 통보따라 自殺방조 혐의 檢擧 나서

“明洞성당 公權力투입 시기 신중 검토”

【全南聯合記者부인 金基勳



姜基勳씨

【全南聯合記者부인 金基勳 27日電】全南聯合記者부인 金基勳(全南聯合記者부인)가 27日 明洞성당 公權力투입 시기 신중 검토를 촉구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김씨는 “성당 측이 공권력을 투입하여 수사하는 시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유서 작성과 통보 등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당 측이 수사기관에 불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 5. 27. 목. 경향

姜基勳씨에 사전영장

검찰, 유서代筆, 자살방조 혐의

“明洞성당 公權力투입 政府차원서 결정”

【全南聯合記者부인 金基勳 27日電】全南聯合記者부인 金基勳(全南聯合記者부인)가 27日 明洞성당 公權力투입 시기 신중 검토를 촉구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김씨는 “성당 측이 공권력을 투입하여 수사하는 시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유서 작성과 통보 등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당 측이 수사기관에 불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사관보내 姜씨 연행기록

검찰 明洞성당 공권력 투입은 일단 유보

9. 2. 29. 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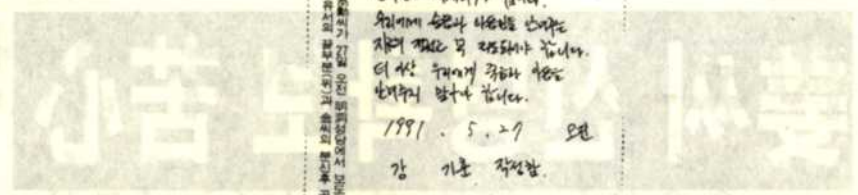
全民聯, 수첩 金씨를 열었다.

수사관보내 姜씨 연행기록. 검찰 明洞성당 공권력 투입은 일단 유보. 9. 2. 29. 서기. 全民聯, 수첩 金씨를 열었다.

노래가 정말 잊혀져야 합니다.
변화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와 아픔만큼 많은
자취를 남겨 주십시오.
이런 귀하게 귀하게 많은
반역의 향기입니다.

1991. 5. 29 연
강 기훈 작곡함.

노래가 정말 잊혀져야 합니다.
변화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와 아픔만큼 많은
자취를 남겨 주십시오.
이런 귀하게 귀하게 많은
반역의 향기입니다.



자취를 남겨 주십시오.
이런 귀하게 귀하게 많은
반역의 향기입니다.

노래가 정말 잊혀져야 합니다.
변화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와 아픔만큼 많은
자취를 남겨 주십시오.
이런 귀하게 귀하게 많은
반역의 향기입니다.

「金씨수첩」내용 정밀조사

검찰 姜씨행적 기재 여부 확인 나서

9. 2. 29. 서기

「金씨수첩」내용 정밀조사. 검찰 姜씨행적 기재 여부 확인 나서. 9. 2. 29. 서기.

「金씨수첩」내용 정밀조사. 검찰 姜씨행적 기재 여부 확인 나서. 9. 2. 29. 서기.

「유서代筆」 증거 더 있다

姜基勳씨 검거에 총력

姜基勳씨 검거에 총력. 「유서代筆」 증거 더 있다. 姜基勳씨 검거에 총력.

분신金씨 유서 내용

姜씨가 직접 써 공개

분신金씨 유서 내용.姜씨가 직접 써 공개. 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姜씨 신병 확보 苦心

검찰 明洞성당 公權力 투입은 배제

노태우 정권도 좌익계야 합니다. 민라당은 개계야야 합니다. 유림에게 승복나 아첨할 순재는 자려 재는 꼭 라드되야 합니다. 더 이상 유림에게 죽혀야 하는 한겨레를 방하지 않습니다. 이제 유림은 모두 쫓겨 나가 적수대로 패배를 당하는 노태우 정권 뒤지워야 합니다. 민라당도 해체 되야 합니다. 유림에게 승복나 아첨 마는 자는 더 이상 유림에게 승복나 아첨 마는 유림에게 쫓겨 마야야 합니다. 이제 유림은 모두 쫓겨 나가

姜씨 공개본 필적, 고의로 다르게 조작된 필적은 찢어진 3장 처음과 달라진술 확보

姜씨 遺書 직접 써보여 검찰 원하면 原本 제출 용의

수첩 조작 의심 여지 없다 주장

姜씨 공개본 필적, 고의로 다르게 조작된 필적은 찢어진 3장 처음과 달라진술 확보

姜씨 공개본 필적, 고의로 다르게 조작된 필적은 찢어진 3장 처음과 달라진술 확보

姜씨 遺書 직접 써보여 검찰 원하면 原本 제출 용의

수첩 조작 의심 여지 없다 주장

강씨, '유서' 직접 써보여

검찰은 자살방조 혐의 사전영장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철씨 분신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에 대해 자살방조 혐의로 사전영장을 발부받은 등 강제수사를 펼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민련 측은 27일 검찰에 제출한 수첩에 기록된 내용에 비추볼 때 수첩의 주인은 승진 김기철씨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발표내용을 강력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지검 강력부(강기훈) 신우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강씨에 대해 자살방조 혐의의 2개월 기한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검사는 27일 "현재 명동성당에 방문수사자가 나가 있으나 검거하는 나가지 않다"면서 "성당이란 특수성 때문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강제 집행하기보다는 일단 수사관을 보내 강씨에게 영장집행에 응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태우 정권도 좌익계야 합니다. 민라당은 개계야야 합니다. 유림에게 승복나 아첨할 순재는 자려 재는 꼭 라드되야 합니다. 더 이상 유림에게 죽혀야 하는 한겨레를 방하지 않습니다.

김기철

노태우 정권도 뒤지워야 합니다. 민라당도 해체 되야 합니다. 유림에게 승복나 아첨 마는 자는 더 이상 유림에게 승복나 아첨 마는 유림에게 쫓겨 마야야 합니다.

김기철

김기훈씨가 27일 기사를 앞에서 속필로 쓴 필적(위)과 김기철씨가 남긴 유서(아래).

있었다 하더라도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민련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은 이날 오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수첩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수첩 앞부분에 적혀 있는 스케줄이 김기철씨 고유의 행적을 나타내므로 수첩은 강씨의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전민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첩 앞부분에 적혀 있는 △동

신문사 전화번호 '627-7717'은 이 대학 신문에 강씨가 원고를 실으며 관계를 맺을 때 적은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검찰에 제출한 수첩이 강씨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또 강기훈씨가 나와 "직접 강씨의 유서내용을 써보이는 것이 고인을 욕되게 할 것 같아 망설여 왔으나 수첩도 조작되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며 원복사용지에 검은색 플러스펜으로 강씨의 유서 내용을 속필로 받아 써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강씨가 이 날 쓴 필적이 "눈으로 보기에 몇몇 부분이 강씨의 평소 필적상의 특징과 전혀 다르게 나타나 필적을 조작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 필적을 다시 감정의 외압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중민·민적은 각각 동서유민주 화운동청년연합·중서유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 약자이며 김기철씨가 민청련에 관여했던 반면 강기훈씨는 민청련과는 무관하다는 점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 '저국의 날 시민결기대회' 등의 스케줄은 강씨가 승의여전 이보형씨가 보는 앞에서 적어 건네준 메모와 내용·필적이 일치한다는 점 △5월6일부터 5월11일까지 순차적으로 잡혀 있는 방송통신대학 '소리새벽' 모임 회원인 지혜·기환·윤희·국영과의 약속은 강씨 개인 스케줄이라는 점 △한남대학교